

## ■ 선택과목 ‘의료와 여성(Women in Medicine)’에 대한 학생반응 분석

연세대학교 의학교육학과 전우택 · 김미란 · 류숙희

An analysis on the students' responses of the elective course,  
“Women in Medicine”

WooTaek Jeon, MD., PhD, Miran Kim PhD, Sook-hee Ryue PhD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al*

= Abstract =

### An analysis on the students' responses of the elective course, “Women in Medicine”

Even though 35% of Korean medical students are female, medical schools and hospitals maintain a strongly male-dominated culture which discourages female students from active career development.

In 2006, Yonsei Medical school instigated an elective course entitled “Women in Medicine” to encourage and stimulate 51 female students who enrolled the

course.

Researchers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s at all 6 lectures, as well as 2 surveys and 4 student focus group discussions comprising a total of 18 students.

The total satisfaction rate of the course was high at 4.6 points out of a 5-point score. Nevertheless, the study results confirmed three conflict points between lectures and students.

Firstly, the lecturers emphasized the excellence and career-goal oriented life style, whereas most students are more interested in an ordinary women doctor's life.

Secondly, the lectur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sband and family's support for success in their career but most female students have little confi-

---

교신저자 : 전우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120-752)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번지  
전화 : 02-2228-2510, 팩스 : 02-364-5450  
Email : wtjeon@yuhs.ac

dence in their ability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Thirdly, the lecturers emphasized the women doctor who is able to lead a team effectively, but women students have few opportunities to play a leadership role in their school life.

These study findings imply that there is a generation gap in the concept of "successful women doctor's life" between lecturers and students, and that interactive dialogue between lecturer and students is more important than lecture style presentations from extremely successful female doctors.

In addition to such lectures, a leadership program based on active student participation should be developed.

---

Key Words: Women in Medicine, female doctor student

## 서 론

1900년 박 에스터가 볼티모의 여자의과대학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약100여년이 흘렀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의사의 수는 전체 의사 중 약 23%인 13만여 명에 이르며, 의과대학생 중 35%가 여자이다. 그러나 의과대학과 병원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여자의대생들은 그들의 경력에 있어 남학생에 비해 불리하다. 사실 높은 학업성취 수준을 갖는 여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하여, 의료계의 고급 여성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자 의대생 교육은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의과대학의 기본 임무이자, 훌륭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 사회적 사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세 의과대학은 2005년부터 의료와 사회 선택과목의 하나로 '의료와 여성(Women in Medicine)' 교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3분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고 있는 이 교과는 "선배 여의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어... 앞으로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학사편람, 2005; 2006)"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의료와 여성(Women in Medicine)' 과목의 설계, 운영,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탐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유능한 여학생들을 사회의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여성 리더쉽 양성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탐색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대상 및 방법

### 가. 연구 대상

'의료와 여성'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6시간(1학점), 12주동안 이루어졌다. 내용은

연세대 의과대학 정원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여학생들에게 졸업 후 의료사회에서 활동해 나갈에 있어 도움이 될 선배 여의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보고서(80%), 수업참여(20%)를 포함하고 있었다.

강좌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1주제, 여의사, 아내, 엄마, 며느리, 딸, 2주제, 여의사 CEO, 3주제, 바쁜 여의사-효율적인 시간관리, 4주제, Image Making, 5주제, 여의사 병원 수련기, 6주제, Dolphin leadership의 시대였다.

수강학생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전체 학생 424명 중 여학생 수는 163명(38.4%)이었고, 이 연구의 대상은 2006년 수강자 중 총 학생수 424명 중 48명으로 약 11.3%에 해당한다.

〈표 1〉 연구 대상

학년(학생수)	전체학생	수강자	비수강자	
1학년(149)	여	54	24	8
	남	95	0	92
2학년(145)	여	51	13	26
	남	94	3	91
3학년(130)	여	58	11	47
	남	72	0	72
	424 (100%)	51 (12.0%)	336 (82%)	

##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가능한 충실히 수집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다음의 네 가지 방식으로 수집, 분석되었다.

(1) 강의이해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2) 수업참관을 통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생들의 참여방식을 분석하였다.
- (3) 수업 참여 동기, 수업에 대한 기대를 비구조화된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 (4) 심층분석을 하고자, 학생 집단면담을 4차례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가. 강의에 대한 양적평가

강의평가부분에서 양적인 평가내용은 아래 〈표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래의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업내용의 이해도에 대하여 학생들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고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문항 2의 수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른 강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2개 강의(여의사 CEO, 바쁜 여의사-효율적인 시간관리의 주제)에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래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전반에 관련해서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심층 분석하고자, 수업이 진행 중인 2006년 9월 20일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수강학생 50명에게 비구조화된 설문을 배포하여 그 중 49명의 응답을 수거하였다.

설문은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주관식 문항이었다. 따라서 1차적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계량화하였다. 즉 응답내용을 몇 개의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그에 따른 빈도를 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표 2〉 담당 교수 및 수업 주제 관련 학생 평가 분석

N=43

	수업 주제	이해용이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여의사, 아내, 엄마, 며느리, 딸	4.84	.49	4.62	.76
2	여의사 CEO	4.16	1.11	3.77	1.09
3	바쁜 여의사-효율적 시간관리	4.49	.70	3.93	.97
4	Image Making	4.56	.77	4.35	.97
5	여의사 병원수련기	4.72	.55	4.68	.65
6	Dolphin leadership의 시대	4.63	.69	4.60	.76
전체총합		27.40	3.29	26.03	3.55
전체평균		4.57	.55	4.34	.59

〈표 3〉 수업 전반 관련 학생 응답

N=43

	내용	평균	표준편차
1	수업내용은 전반적으로 학습목표와 일치하였다	4.53	.67
2	매 시간 수업은 내용의 중복 없이 잘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4.05	1.05
3	수업교재와 자료는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4.07	1.01
4	이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4.26	.85
5	수업에 따른 양적 부담(과제물, 수업준비, 시험 등)은 적절하였다	4.43	.80
6	실험·실습은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49	.77
7	나는 수업을 성실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30	.80
8	나는 수업 과제물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4.51	.67
9	수업은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 이었다	4.65	.57
전체 총합		39.21	5.76
전체 평균		4.36	.64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생들은 전 문화된 학술 내용보다는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여자 선배들의 경험을 듣고, 그에 대한 대응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업진행방식에 대하여도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강의에 대한 질적 평가

강의에 대한 학생들과의 집단면담을 통해 얻은 질적인 평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 첫째, 여자 선배로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 둘째, 부담없는 편안한 수업이어서 좋았다.
- 셋째, 강의 내용이 중복되었다.
- 넷째, 소수의 성공한 또는 특수한 조건에서 살았던 선배들의 삶에 대한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꼈다.
- 다섯째, 수동적 소극적 여성관과 주어진 현실에 대한 수용론을 주장하는 경향이

〈표 4〉 중간설문 조사결과

1. 왜 'Women in Medicine'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까?(N=49)	빈도
① 선배들의 체험담, 조언, 대처방법 등을 듣고 싶어서(role model)	31
② 친구, 선배의 추천, 평소에 듣고 싶었던 과목이라	18
2.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N=49)	
① 선배들의 체험담이 유익하였다	34
② 초점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이었다	7
③ 냉혹한 현실이 느껴졌다	3
④ 더 구체적, 실질적인 극복방법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3
⑤ 선배들의 삶이 너무 벽차보였다	2
3. 이 수업에 대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의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① 구체적, 현실적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12
② 자유로운 질의, 응답 또는 토론식으로 학생들의 참여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10
③ '여성'만의 경험을 더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7
④ 문제극복 방법이나 사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6
⑤ 능력있는 선배들의 성공담 보다는 '보통' 여학생들 대상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5
⑥ 평범한 개업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2
⑦ 'excellent해라', '더 공부하고 노력해라' 하는 반복적인 얘기에서 벗어났으면	2
4. 의과대학의 학업과 생활에서 '여자'로서의 어려움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학생 4명 제외)	
① 아직까지는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	15
② 학교내 선후배 관계, 동아리 모임(특히 술자리)에서	13
③ 앞으로 전공의 과정이나 과선택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9
④ 공부할 때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7
⑤ 강의 중 또는 실습시 교수님의 성차별적 발언이나 대우	5
⑥ 여자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스트레스	5
⑦ 가정에서	2
⑧ 남자친구를 사귄때(학과 외부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기 어려움)	1

있다.

여섯째, 여성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강사들은 훌륭하고 좋은 경력을 가진 의사의 생활 스타일을 강조한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적인 여성 의사의 삶에 더 관심을 보였다. 여자 의대생들은 강사들과 같은 정도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았고, 강사들은 매우 능력이 있는 여성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일반의사로 살아가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강사들은 자신들의 경력에 있어, 남편 및 가족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일과 가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강사들은 성공적이고 유능한 여성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그들이 좋은 지지자들을 가진 행운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강사들은 팀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성 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여학생들은 실제 학교생활에서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의 의과대학의 문화는 남성중심적이다. 최근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여학생이 있다고 해도, 많은 대학 및 대형병원은 남자 졸업생을 더 선호하며, 남자 졸업생에게 리더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다.

## 제 언

‘의료와 여성(Women in Medicine)’은 여학

생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심층면접내용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학생들과 강사간의 세대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극복하여 더 좋은 교과목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강사와 학생간의 상호 대화 및 관심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강사들은 여학생들의 문화,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더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의사에게 사회로부터 주어진 의미 있는 역할 및 기대,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의사의 시대적인 특성과 그들의 헌신 및 가치를 두었던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여자 의대생들은 유명한 여의사가 누린 혜택보다는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여자대학생들에게 여성의사협회, 여성의사의 조직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그들이 남성중심문화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의사 개인이 아님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동료를 이해시키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도록 남자의대생을 이와 같은 수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여성 문제는 여성의 힘만으로는 개선의 범위와 내용이 한계가 있다. 또한 남성의사에게도 여성의사가 한 사람의 의사로서 온전히 역할할 때, 더 좋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추후에 여학생의 진로결정 및 경력관리를 위해서 ‘의료와 여성(Women in Medicine)’ 과목 외에도 여성의사로서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윤숙(2002) 여대생의 성역할태도와 전공선택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0(1).  
권혜진 외(2003) 여대생의 성역할에 관한 주관성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1).  
원숙연(2006) 젠더화된 멘토링의 구조와 작동원리: 심층면접을 적용한 사례연구, 한

국여성학 22(1).  
이성은(2004) 한국의 조직문화와 여성의 사회적 연결망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조용환(1996)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여대생의 '홀로서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3(5).  
홍기령(2002) 여성고유의 리더십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회 2002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학사편람(200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발간  
학사편람(200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발간